

좋은 음악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꿈

클래식 전도사 안철씨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에서는 일주일에 세차례씩 감상회가 열린다.

클래식 음악(매주 화요일), 발레(매주 금요일), 영화·예술다큐(매주 토요일) 등 주제도 다양하다. 이미 2010년 프로그램 150회분이 모두 나와 있다. 클래식 음악감상회는 상무지구 음악감상실 한울림(매주 수요일)에서도 진행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꾸리는 이는 한 사람.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상 편집 등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클래식 애호가 안철(61)씨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찾은 안씨의 서재 겸 음악감상실은 그야말로 문화의 보물창고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CD가 3천500여장, DVD가 2천여장, 레저 디스크가 500여장 쯤 된다고 한다. 그림 감상을 좋아해 유명작가들의 화집도 100여권이 넘고 서적도 넘쳐난다.

금호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안씨는 지난 1994년 우연한 기회에 MBC FM 클래식음악프로 'FM모닝쇼'와 KBS FM '노래는 날개 위에'에서 다양한 주제로 음악을 소개하며 "클래식 음악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안씨가 감상회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래의 날개 위에' 애청자들이 '노날'이라는 모임을 꾸리고 안씨를 초청, 한달에 한번씩 함께 음악을 들은 게 시작이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베토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몇몇 단골들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 2008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클래식 음악감상회를 진행했다.

2008년 명예퇴직하면서 시간이 많아진 안씨는 지난해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렸다. 클래식음악 감상회와 영화감상회를 100여회 열었고, 주말에는 발레와 예술 다큐 등 다양한 영상물을 보는 특별감상회도 여러차례 개최했다. 또 한울림에서도 감상회를 진행했고, 광주프랑스문화원에서는 프랑스 발레와 뮤지컬 감상회를 열었다.

올해는 욕심을 부려 발레감상회를 새롭게 시작했다. '백조의 호수' 등 유명 발레부터 '라 실 피드' 등 국내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발레를 52주 동안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지난해 토요일감상회 때 미하엘 바리시니코프와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의 공연을 감상했는데 참 좋아하더군요. 우리 지역에서는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클래식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발레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 영상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친김에 한번 해보자 했죠."

안씨가 올해 진행할 150여회 감상프로그램은 주제도 다양하고, 2시간 감상용 영상 자료를 편집하는 데 품도 많이 든다. 소평 탄생 200주년 기념프로그램 등 같은 작품이라도 연주자, 지휘자, 연출자가 다른 버전으로 감상한다. 또 빈 신년음악회는 40여년 동안의 음악회 가운데 '폴카'곡만을 묶어 다시 편집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깝죠. 음악 봉사를 통해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확신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안씨에게 힘을 주는 건 영상을 감상하는 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이다. 베토벤과 한울림 감상회에 격식 같은 건 없다.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시간이 나면 와서 함께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클래식 음악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안씨의 유일한 바람이다. 베토벤 062-222-8410, 한울림 062-375-22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D·DVD 6,000여장 보유

매주 네차례 베토벤·한울림서 감상회

클래식·발레·영화 등 장르도 다양



미술관 만족도가 높은 관람객일 수록 다른 문화활동에 참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첫 방문한 미술관 만족도 높을수록 작품구입 등 문화욕구 커진다”

시립미술관 장경화 분관장 박사 논문서 주장

첫 미술관 방문이 즐거웠던 관람객 열 명 중 여덟 명은 다시 미술관을 찾거나 작품을 구입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상록분관장경화 분관장은 최근 제출한 조선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현대미술관의 방문객 중심 경영 관리 연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은 300명의 관람객 중 만족도를 느낀 240명 중 80%인 192명이 다시 미술관을 찾거나 작품을 구입하는 '제2문화추구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방문을 통해 미술관 친해진 관람객들이 더욱 폭넓은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장 분관장은 "이들 관람객들은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도 미술관 방문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차 방문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미술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레저 시설, 놀이동산, 식당, 쇼핑센터 등과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모리미술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프랑스 퐁피두센터 등이 부대시설을 다양화시켜 관람객 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 "국내 미술관들도 이들 시설을 유치하거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분관장은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시과장 등을 지냈으며,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전과 현대의 아찔한 만남

임병중 개인전... 내달 24일까지 옥과미술관

관화가 임병중씨가 오는 2월 24일까지 곡성군 옥과면 옥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는 그동안 선사시대 암각화와 고대벽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독특한 관화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슈퍼맨 옷을 입은 돼지 캐릭터를 만들어내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를 혼

합시킨 작품들이 눈에 띈다. 만화처럼 아기자기한 돼지의 모습과 전통기법으로 그려진 호랑이의 모습 등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임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 베이징, 서울, 부산 등지를 오가며 전시회를 했고 이스타볼국제관 화비엔날레 등에 출품했다. 현재 광



'memory-a different me'

주현대관화가협회, 예뵤고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63-727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4기 신입생 모집

(사)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회장 송영복)는 광주노인지도자대

학 제24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정원은 60명이다. 입학에 원하는 어르신(60세 이상)은 입학원서, 가족관계부 등 서류를 준비해 연합회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3월부터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노인지도자 자질과 교양, 노년의학, 경영 등의 수업을 받게된다. 수업료·교재비는 무료이며 수업 당일 점심을 제공한다. 문의 062-652-73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he Great Technology KOS

퍼져라 푸른빛 물결!

KOS 주식회사 한백

111-1111-1111

061-1111-1111